



## 글로벌 경제위기 해법의 새로운 키워드 '상생협력'

### 대·중소기업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은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룩하는 핵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위축으로 기존의 투자계획마저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구축은 경영 난제의 적극적인 해법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야 살아날 수 있고, 동반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상생협력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거듭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0대 그룹의 협력업체(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은 2005년 1조 401억 원, 2006년 1조 4,307억 원, 그리고 2007년에는 2조 782억 원으로 45.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협력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그룹도 2005년 8개사, 2006년 15개사, 그리고 2007년에는 19개사로 증가했다. 또한 임직원 직원별 목표관리에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실적을 반영하는 그룹이 2007년에 15개 그룹 32개 계열사로 확대되고 있다.

상생협력의 범위도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업과 건설업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혹은 모기업)과 1차 협력사간 협력에서, 1차 협력사를 비롯해 2, 3차 협력사간 협력으로 확충되고 있다. 상생협력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설비·시스템·자금 등에 대한 단순 지원에서 자금지원 확대를 비롯해 기술 교류, 동반 해외진출, 사회책임경영 공동추진 등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상생경영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개별기업의 독자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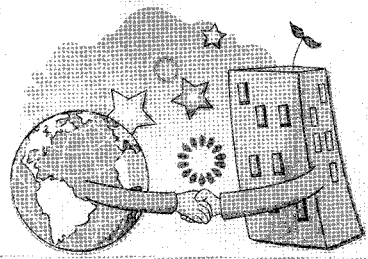
되어 왔지만, 지난 7월 22일 삼성전자가 7개 계열회사의 1차 협력사까지 포함해 1,350여 개 협력사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체제 구축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약 2,400개 협력사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으로 혁신자립형 중소기업 육성하기로 한 현대·기아차그룹, 2차 협력업체 3만 8650개사 등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그룹 차원의 지속적 상생협력 위한 국내 첫 상생경영위원회 구성한 SK그룹, 공정거래 보장 및 협력사 운용자금 등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롯데그룹의 상생협력 방안을 들여다본다.

### 현대·기아차그룹, 국내 최대 규모 공정거래협약 체결

약 2,40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으로 혁신자립형 중소기업 육성

현대·기아차그룹이 협력회사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생경영 실천에 들어갔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9월 9일,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10개 계열회사, 주요 협력회사 대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익환 기아차 부회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원사업자는 현대·기아차를 포함 10개사, 이들의 1차 협력회사 2,368개사 등 약 2,400개 회사에



이르며, 지금까지 협약체결 규모로는 원사업자, 협력회사 모두 국내 최대다. 이번 협약 체결로 현대·기아차그룹은 협력회사들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2,3차 협력업체 및 타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 이영섭 협력회장(진합 대표)은 협력회사를 대표해 “이번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선은 2,400개의 협력사가 모기업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통한 창조적 공존의 길로 들어섰으며, 이는 다시 전국의 7,000여 중소 협력사로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며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1위의 자동차를 위해 아주 작은 부품 하나하나까지 세계 최고의 품질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의지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회사 자금 및 기술 등 종합지원 대책 등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한 ‘3대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력회사 선정 및 운용에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고, 우월적 지위를 통해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됐다.

3대 가이드라인은 원자재 가격, 시장 환경 변동요인 등을 반영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계약체결 후 서면계약서 교부, 부당한 감액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및 취소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 ‘협력회사 선정, 운용 가이드라인’, 자율적인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그룹은 협력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 자립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무건전화, 품질 및 기술개발 촉진, 교육훈련 및 경영활동 지원 등 다각적인 육성책을 마련했다. 우선 재무건전화를 위해 기존에 진행해 오던 납품대금 100% 현금결제,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론 외에도 1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비 무상지원, 경영혁신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 조성, 1,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신용대출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품질 및 기술 육성을 위해 부품산업진흥재단과 게스트엔지니어링 제도 등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제품아이디어를 공모해 공동기술을 개발하는 벤처플라자를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동반진출, 원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연구소와 구매부문의 상생협력 전담조직을 통해 모든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기아차 김익환 부회장은 “현대·기아차의 차량품질 향상과 전 세계 시장에서의 선전은 협력회사의 혁신과 노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었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협력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SK, 그룹단위 상생경영시스템 만든다

16개 주요 관계사 참여해 상생협력 선포  
그룹 단위로는 국내 처음 ...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SK그룹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 협력업체를 위한 그룹 단위 상생경영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명문화한다. 이를 위해 SK그룹은 그룹 단위의 상생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SK상생경영위원회(위원장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를 신설한다.



SK그룹은 또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 공정한 계약체결 ▲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 불공정한 거래의 사전 예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상생경영의 주요한 원칙으로 채택했다. SK그룹은 이와 함께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해 SK그룹의 상생경영이 1차 협력업체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했다.

SK그룹은 9월 2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최창원 SK상생경영위원장,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 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등 SK그룹 계열사 CEO 등 16명과 SK건설 협력업체인 창화이지텍(주) 정이택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K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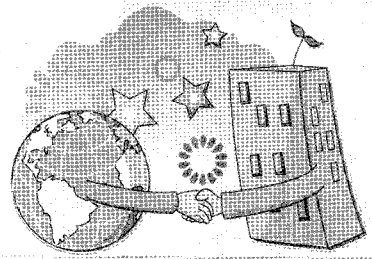
이에 따라 SK그룹은 앞으로 SK그룹 주요 16개 관계사의 전체 협력업체 5679개사에 대해 자금·금융 지원, 100% 현금성 결제 등 대금지급조건 개선, SK상생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기술지원 등 철저하고 지속적인 상생경영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전체 협력업체 5679개사 가운데 하도급 거래업체인 1024개사에 대해서는 ▲ 구두 발주 금지 ▲ 합리적인 하도급 대금 결정 ▲ 부당한 감액행위 금지 등 하도급 공정거래를 철저히 지켜 나가기로 했다.

최창원 부회장은 이날 "SK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와 힘을 한데 모아 난관을 극복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으로 SK그룹의 전 협력업체는 미래채권 및 신용보증기금 출연 담보대출 운영자금 3,080억 원과 기술개발 및 안정적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직접 지원 865억 원은 물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알선 받거나 보증도 받게 된다. 또 협력업체 CEO를 교육하는 CEO세미나 참석 대상자 수가 종전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나고, 협력업체 중간관리자를 교육하는 상생 MDP 프로그램 참석 대상자 수도 종전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는 등 협력업체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양적·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각종 경영·경제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e-Learning 대상자 수도 2만명에서 2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SK그룹은 또 상생경영이 1차 협력업체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에도 선순환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SK그룹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2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의무를 명문화했으며, 이에 따라 상생경영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SK그룹은 이어 우수한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SK상



생아카데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업체를 선정·등록 또는 평가할 때 2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우수업체는 우대해 나갈 방침이다.

SK그룹 각 계열사들은 업종과 협력업체의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도화했다. 대금지급조건과 관련해 SK에너지, SK텔레콤 등을 포함 10여 개 계열사가 100% 현금결제 조건을 준수하고, SK(주), SKC 등 5개 계열사는 대금지급일정을 개선하는 한편 현금결제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SK텔레콤, SK케미칼, SK건설은 우수한 협력업체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면제, 경쟁 입찰 참가 우선권 등의 구매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위해 협력업체들이 상시적으로 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롯데그룹 8개사, 2,449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 공정거래 보장 및 협력사 운용자금 등 파격지원 약속

롯데제과 등 롯데그룹 8개 계열사는 10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을 비롯해 8개 계열사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그리고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결 합동 선포식을 가졌다.

롯데그룹 계열사 8개사는 총 2,449개에 달하는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다짐하게 된 것.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 역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및 운용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 자금 지원과 대금지급조건 개선, 품질·기술(개발)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 연계 협력사 네트워크론 대출 586억, 협력업체 기술개발 자금 110억, 협력업체 운영자금 등 지원 174억 5,000만 원 등 총 870억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롯데제과, 롯데햄, 롯데알미늄, 롯데칠성음료, 롯데삼강, 롯데기공 등 6개사는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하고, 지급기일 단축과 선금금 지급범위 등을 확대하는 등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하게 된다.

또 각 계열사마다 기술개발 샘플비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추진, 국산화 및 신기술개발 지원, 신제품 공동개발 지원과 더불어 협력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지원과 품질경영세미나 등 품질·기술(개발) 지원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품질 향상 및 원가절감 우수 협력사에 대해서는 구매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을 체결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기업평판(Reputation) 제고를 위해 협약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 면제·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음으로써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